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8월호
2012

뉴멕시코주 한인 행사 일정

9월 10일: 상공회의소 비빔밥 행사

9월 12일 한글학교 성인반 개강

9월 14일: 순회 영사 업무

9월 15일: 한글학교 학생반 개강

(자세한 사항은 옆에 소식란 내용을 참조하세요)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Tel: (505) 341-0205 www.kumcabq.com

귀하를 초청합니다

Invitati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cordially invites you
to its 30th Anniversary Service
on Sunday, September 9, 2012
at eleven o'clock A.M.
(founded on September 12, 1982)

저희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는
알버커키 교민여러분들을
오는 9월 9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성도 일동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 순회 영사 업무 안내

순회영사업무 내용

- 여권 발급신청
- 가족관계등록(구 호적업무, 출생·혼인·사망)
- 국적(상실·이탈)
- 병역
-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 재외국민등록(등록·등본발급),
-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등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

일정: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한인회관

문의: 한인회관: 505-271-1777,

한인회장: 505-270-1984

이번 기회를 이용 못하시는 분을 위한 문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이메일: consul-la@mofat.go.kr

전화: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2.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참여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 한
다.

○ 기간: 2012. 7. 22(일) ~ 10. 20.(토)

- 평일접수 시간 09:00~17:00

- 공휴일, 토, 일요일 접수 시간 10:00~16:00

*신고, 신청 기간 중 공관 2층 회의실에서 상시 접수

○ 장소: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2층 회의실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문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 213-385-0012~3)

양식은 인터넷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ean/am/usa-losangeles/news/announcements/index.jsp>에
서 다운 받거나

한인회관과 3군데의 한인마켓(아리랑, 김스, A-1, 아시
아 마켓)에 비치되어 있다.

1. 국외부재자신고서 2.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3. 서식 작성 예시

3. 뉴멕시코한국학교 가을학기안내

2012년 가을학기개강 :

9월15일(토) Pre(3.5)-K-12학년 9:15am - 12:15pm

9월 12일 (수) 성인반 6 pm - 8 pm

• 과 목 : 한국어 (교재: E-높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 (한국문화, 무용, 동요, 미술)

• 수 업 료: \$120 + 교재비 \$30

• 장소 및 연락처: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

www.kaanm.com,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505) 271-1777, (505) 401-3645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Registration

• Fall Semester: Begins on

- Sat. 9/15/12 Pre(3.5), K to 12th Grade)

9:15am - 12:15pm

- Wed. Sep. 12th (Youth/Adults) 6pm - 8pm

• Tuition: \$120 per semester + Text \$30

• Location & POC: NM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Community Center)

- 9607 Menaul Blvd. NE (NW corner of Menaul & Eubank) Albuquerque, NM 87112

www.kaanm.com, (505)271-1777, (505)463-5320

4.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의소 소식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아래와 같이 비빔밥 판매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내용: 비빔밥 판매행사 - \$10 / ticket

- Fund Raising의 목적과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비빔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개최합니다.

- 아래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며 Take-out 포장도 가능합니다.

2. 일시: 9월 10일 (월요일), 11:30AM - 6:30PM

3. 장소: Huong Thao Vietnamese Restaurant

1016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Lomas & Constitution 사이에 동쪽 편)

4. 상공회 임원들을 통해 Ticket 판매를 시작하였으니 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 연락: 김경숙 505-228-5341, 김철 505-999-8222

5. 한인회 지난 행사들:

이천시, 미국 3대 문화도시 샌타페이(Santa Fe) 시와 동반관계 구축 국제교류 협약(MOA) 체결

경기도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미국의 3대 예술의 도시로 이름난 샌타페이(Santa Fe) 시 진출에 성공했다. 이천시는 조병돈 시장이 현지시간 지난 7월 13일 미국 뉴멕시코 주 주도인 샌타페이 시 데이비드 카스 시장과 샌타페이 컨벤션 센터에서 양 도시의 경제·문화적 발전과

우호 관계 확립을 위한 역사적인 국제교류 협약(MOA)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 국가의 국기제양으로 시작된 이번 협약식에는 두 도시에서 참석한 60여 명 관계자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됐다. 이천시에서는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김인영 전 시의회의장, 이대영 도자기조합장, 조명호 문화원장, 한영순 한국도예고등학교장, 한석봉도예 한도현 작가, 김선우 미술협회 지부장, 뉴멕시코 주 김두남 한인 회장을 포함한 한인회원, 그리고 현지 한인 자원봉사자인 김송 씨 등이 자리를 함께 했고, 샌타페이 시에서는 데이비드 카스 시장, 레베커 와츠버그 부시장을 포함한 샌타페이 시 시의원 8명 전원, 샌타페이 아트 커미션, 시민단체, 기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데이비드 카스 시장은 협약서에 서명 후 "샌타페이의 역사는 400년이 되었는데 이천시는 이제 샌타페이의 그 역사 속 일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이천시를 방문했을 때 이천시가 베풀어준 환대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향후 샌타페이와 이천시는 예술가 교류, 학생 교류는 물론이고 양 도시 간 가능한 모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모범 사례로 영원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 대표단이 산타페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2013년에 이천시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맺기로 추진하는 등 두 도시의 우호적인 교류는 앞으로도 활발히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방문에 동행한 한도현 작가는 전 세계 156명의 유명 수공예작가가 참여하고 '유네스코 우수 프로그램'에 빛나는 「샌타페이 국제 포크아트 마켓」(Santa Fe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의 전시·판매 초청과 함께 세계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 만 전시·판매하는 캐니언 로드 오브 게버트 컨템 프러리(Gebert Contemporary) 갤러리와 전시 계약을 체결해 한국 도예작가로서는 최초로 샌타페이 시에 진출하게 됐다.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샌타페이 시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로 이천시가 그동안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의 교류에 머물렀던 한계를 벗어나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 이천시역 문화예술인들이 미국 시장진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와 같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민속공예분야에 지정된 샌타페이 시는 인구 7만 5천명의 도시지만 미국에서 가장 오랜 도시 역사를 지닌 뉴멕시코 주의 주도이며, 특히 인구의 절반이 예술인으로 구성될 만큼 뉴욕, LA와 함께 미국의 3대 문화·예술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도시다.

참고,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남명우 기자



이천 한석봉도에 한도현 작가, 미국무대 데뷔

경기도 이천의 한 도예가가 미국의 3대 예술의 도시 중 하나인 샌타페이 무대에 데뷔해 화제다. 주인공은 진사 도자기로 최고의 형태미와 색채미를 자랑하는 한석봉 도예의 한도현 작가로 지난 19일(현지시간) 샌타페이 시의 캐니언 로드에서 위치한 게버트 컨템퍼러리(Gebert Contemporary) 갤러리의 전시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단했다. 이날 등단식은 다비드 코스 샌타페이 시장, 레베카 시의원원을 비롯해 지역의 유명 갤러리 오너와 작가, 현지 교포 등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화려하게 열렸다.

이번 작가 등단식을 준비한 게버트 컨템퍼러리 갤러리 오너인 제인 이건(Jane E. Egan)은 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내 생애에 이러한 작품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극찬하며, "특히 전시되는 작품 중 진사요변 2점은 샌타페이 내에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대작"이라고 평가했다. 전시와 작품 판매는 한도현 작가와 독점 계약한 게버트 컨템퍼러리 갤러리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세계 유수의 수공예 작가들의 전시·판매 행사인 「샌타페이 국제 포크아트 마켓」(Santa Fe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에 정식 초대된 한도현 작가는 지난해부터 샌타페이 시의 갤러리,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며 물레 시연 등을 통해 우리 전통도자기의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해 왔다.

한편, 한도현 작가는 30년 이상 전통 가마를 고집하면서 자기만의 태토준비와 유약개발로 백자, 고백자, 유백자, 청자, 다완 등에 독특한 색채미를 표현해 왔다. 특히 장작가마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자연스런 불길의 신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업한 진사요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까지 한다.

참고, 아시아투데이-남명우 기자



한도현작가 SFCC(Santa Fe Community College) 특별초정 강연(물레시연)
갤러리: Jane E. Director, Gebert Contemporary
주소: 558 Canyon Rd. Santa Fe, NM 87501
Tel: 505 992-1100

 <p>Japanese Kitchen Steak House</p> 	<h2 style="text-align: center;">Japanese Kitchen</h2> <h3 style="text-align: center;">제페니즈 키친</h3>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p> <p style="text-align: center;">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p> <p style="text-align: center;">(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p> <p style="text-align: center;">Phone(505) 884-8937</p> <p style="text-align: center;">6521 Americas Parkway, NE, ABQ</p>	 <p>Japanese Kitchen Steak House</p> <p>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p> <p>Phone: 884.8937 Fax: 884.8938</p> <p>www.japanesekitchen.com</p>
--	--	---

한글학교 문화의 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지난 5월 12일 East Gate 교회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한국 학교 자체 큰 행사를 했다. 한국 학교를 통해서 배운 언어와 미술, 무용, 음악이 골고루 드러난 발표회는 노력

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성과로써 많은 이들에게 뿌듯함과 자부심을 준 시간이었고 이 행사와 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은 한국학교 후원을 위한 문화의 밤 행사와 체계적인 교사 수업방식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한국 교육원 재로스엔젤레스)를 위해 쓰여졌음을 알려드린다.



프로그램: 사회: 이승중, 신미경 교사 미술전시, 현악 3중주 Violin: Alicia Lee, Viola: Sam Zue, Cello

: Rebec 동요 부르기: 솟자송, 거위의 꿈, 주부 무용단의 부채춤, 윤광인 색소폰 독주: 고향의 봄, 김건이 피아노 독주, 학부모인 Sop. 서유경씨의 독창: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신 아리랑, 사물놀이 임은아의 3명, 한국학교 학생들의 봉산 탈춤, 다이나믹 태권도의 태권도 시범, 이선아 교장의 지전춤, Hip-Hop Dance: 윤다슬, 윤슬기. 또한 행사가 끝난 후 학부모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저녁식사가 있었다.



아시안 페스티벌

매년 아시안인들의 축제인 아시안 페스티벌이 올해도 5월 20일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알버커키 주부 무용단의 부채춤과 사물놀이 팀의 사물놀이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무용과 한국의 전통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Federally Chartered) Saturday, June 23rd,

10 a.m.: Our chapter will participate in an anniversary observance of the Korean War's beginning with our

friend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lace: The beautiful Veterans Memorial on Louisiana.

Local and state political entities have been invited to join us.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기념의식에 다수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뉴멕시코주 교역자 협의회 윤성열 목사님의 기도와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다.





동포 간담회

신연성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6.18(월) 관할 주인 뉴멕시코 주 산타페를 방문. 수재너 마르티네즈(Susana Martinez) 뉴멕시코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한-뉴



멕시코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한-뉴멕시코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MOU) 체결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신 총영사는 뉴멕시코

주의 한인사회에 대한 주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망하였다.

또한 신연성 총영사는 같은 날 앨버커키에서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신 총영사는 정부와 총영사관의 교민보호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금년 12월 대선에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한인단체 대표들은 총영사관과 한인사회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첨부 : 사진 2)



재외국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과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 조남철)은 11월 1일(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5층 회의실)에서 재외국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양해각서는 재미동포간호사들에게 학사 학위 취득 시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방송통신대학에서는 11월 2일(수) 로스앤젤레스 한국 교육원에서 편입과정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편입생 선발, 현지시험 실시 등에 관한 '재외동포간호사 학위취득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설명회 일정

1. 재외국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일시 : 2011.11.1.(화) 15:00 ~15:30(30분)

○ 장소 :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5층 회의실

○ 행사 내용 : 양해각서 체결식 및 Q & A

○ 참석 대상 : 언론사 관계자 등

2. 재외동포간호사 학위취득 지원 사업설명회

○ 일시 : 2011.11.2.(수) 15:00 ~17:00(2시간)

○ 장소 :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1층 강당

※ 주소 :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U.S.A.

○ 행사 내용 : 방송통신대학교 안내, 사업 설명회 및 Q&A

○ 참석 대상 : 간호학사 취득 관련 관심 있는 분 및 한인 간호협회 관계자 등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정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① 재미 한인간호사에 대한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습 기회 제공

※ 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에 따른 유학비자는 발급하지 아니함.

② 인적자원 · 시설 · 교육자료 등 교육 인프라의 교류협력

③ 국가 · 사회 · 양 기관의 발전 및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제4조(세부사항) 제3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하는 간호학과 3·4학년에 대한 각종시험(중간 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을 현지(로스앤젤레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기간: 2012.2-2016.2)하고, 동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시험 안내 및 부수적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일방의 해약 요구가 없는 한 협약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방송통신대학교와의 MOU가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곳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한국에서 보시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LA 한국교육원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한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에세이-

원숭이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지구상의 생물계는 크게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뉜다. 아메바나 쥘신벌레처럼 단 하나의 세포로 된 원생동물에서부터 등뼈를 가진 척추동물까지의 모든 동물은 모두 12개의 문(門)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동물계에서 가장 복잡한 체제와 분화된 기능을 가진 척추동물문에는 어류 · 양서류 · 파충류 · 조류 · 포유류가 포함된다. 이때의 유(類)는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의 하나로, 문 다음의 강(綱)이나 목(目) 대신에 대중적이며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다.

척추동물 중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있는 동물은 포유류인데, 포유동물이라고도 하고 젖먹이동물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일곱 개의 목등뼈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피부는 털로 덮여있으며 대뇌가 잘 발달하여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고등동물이다. 사막 · 삼림 · 극지 · 고산 등의 지상 · 지하 · 지중 · 수중 · 공중 등 온갖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포유동물은 갖가지 환경에 맞게 분화한 결과 형태나 습성도 그만큼 다양하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두뇌가 발달한 동물은 영장류다. 영장류는 수상생활(樹上生活)이나 보행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고, 평평한 손톱과 발톱을 지니고 있으며 대개 낮에 활동한다. 삼림 등에서 떼지어 살면서, 곤충 · 과일 · 작은 새 · 나무껍질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인류까지를 포함하는 영장류는 기본적으로 사지에 각각 다섯 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어 물체를 쥌 수 있다. 가슴에 한 쌍의 유방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존재하는 영장류는 200여종에 달하며, 원시적인 동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외부요인의 작용이나 유전자의 변화에 때문에 모양이며 지능에 매우 큰 변이성을 나타내는 동물집단이다.

포유강 영장목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통틀어 원숭이라고 한다. 겨우 혼적만 남은 꼬리를 가진 바바리원숭이며 코가 위쪽으로 휘 들창코원숭이는 형태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부산악 지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있다. 거기에는 특유의 들창코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뾰족한 코는 동상에 잘 걸리기 때문에 매섭게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적응한 결과 코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들창코원숭이는 인근 티베트나 미얀마에서도 발견되어 모두 다섯 가지 종을 가지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위로 휘 코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감춘 모습이 사람의 눈에 자주 띈다. 사람 다음가는 고등동물인 원숭이는 대뇌 이외에도 색

각 · 시각 · 청각이 발달하고 지능이 높은 것도 많다. 힌두교 신의 이름을 딴 하누만원숭이는 인도에서 신성시되는 긴꼬리원숭이다. 이 녀석들은 지능이 매우 높아서 능력의 한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뉴델리 시에서 2010년 10월에 영연방공화국 게임이 열렸는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질이 사나운 벵갈원숭이 및 다른 야생동물들이 공공장소를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38마리의 하누만원숭이를 훈련시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원숭이도 그 지능을 미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보르네오에서는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 코코넛을 따서, 원숭이가 손을 집어 넣을 수는 있지만 손을 움켜쥔 상태에서는 꺼낼 수 없을 만큼의 구멍을 낸다. 구멍 난 열매 속에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을 넣은 다음 나뭇가지나 말뚝에 매어놓고 기다린다. 냄새를 맡고 다가온 원숭이가 코코넛 속에 손을 넣고 향기 나는 것을 움켜쥐면 이내 땃에 걸리고 만다. 사냥꾼이 다가오면 놀라 질색하지만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원숭이를 땃에 걸리게 하는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땃을 만든 사람이다. 하지만 원숭이가 손에 움켜쥔 것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땃에 걸리지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는 앓을 것이기에, 덧에 걸리게 만드는 건 바로 원숭이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쓸려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냥 매달리는 것이 집착이다. 원숭이보다 훨씬 지능이 높아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줄곧 무엇인가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평생 동안 겪어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불가에서는 가르친다. 결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아무 것도 지니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도 세상의 아무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바둑의 사석은 작전상 버릴 썸치고 놓는 돌이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도 무상한 것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면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라고 말한다. 내 능력 밖의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고 때로는 뜻밖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아니 내 자신이 바뀌면 먼저 세상이 달리 보인다. 나는 가끔씩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오래 전 달을 향해 돌을 던지던 동굴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축하드립니다. 매월 '광야'에 수필을 올려 주시는 이정길 교수님께서 지난 7월 25 - 29일 Las Cruces에서 열린 New Mexico Senior Olympics Summer Games 탁구 (70 - 74세 그룹)에 출전하여 내외분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사모님은 여자복식에서 금메달을, 교수님은 남자복식에서 은메달을 뽐내셨습니다.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띠를 띠고 섬기는 사람들 Part 1

김준호 장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누가 12: 37절)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부엌에서 힘든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치마저고리를 입으시고 띠를 띠고 일을 하셨다. 부엌에서 불을 때고 밥솥에다 쌀과 잡곡들을 씻어 담고 또 국솥에다 국물을 붓고 고추장, 된장을 풀어넣고 무나 배추 아니면 감자들을 썰어 넣고 끓이고 또 반찬을 만드시고.... 아버지는 아침이면 밭에 나가 농작물들을 돌아보곤 하셨다. 그 당시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어머니들은 많은 노동을 하셨다. 우리 집은 여섯 식구 외에도 염소 3마리, 돼지 2마리 개 한 마리를 키웠으니 어머니의 일은 태산 같았으리라.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힘든 일들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독자들도 어머니들의 지극했던 “내리 사랑”을 공감할 줄 안다. 우리 집사람도 CVI에서 매일 8시간을 일하며 남매를 키우면서 그런 미술 작품 전람회를 한국에 가서 두 번씩이나 했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했었을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띠를 띠고 섬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느헤미야, 요셉 등이고 신약에서는 바나바 와 바울을 들 수 있겠다. 이분들은 한결 같이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분들이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까?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대포를 쏘지 않는 사람, 또는 허무맹랑하게 혈뜰길 때라도 아주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일 것이다. 나도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후회 막심하지만 Too lat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이글 서두에 있듯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중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떠를 띠고 그 중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겠다고 했다. 이 구절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을 위해서 섬길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한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떠를 띠고 섬기겠다고 하신 약속은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복중의 복일 것이다. 독일의 성경학자 Bengel은 이 37절을 The Greatest Promise in All God's Word라고 평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66권 전체 성경말씀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Hallelujah!! 우리 주님이 떠를 띠고 중들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흉내는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우리들도 마땅히 섬겨야 하겠다.

구약성경 중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대순으로 따지면 의당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순서로 짜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아래 도표에 나와 있듯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BC 479년 이고 에스라가 2천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그 후 BC 458년(에스라 8:1-20절)이고 느헤미야가 3차로 온 것이 BC 445년 이니까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에스더서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바사왕들

연대 (BC, 년)	페르시아 왕들과 중요한 사건들
539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복
537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민족들,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향. 수로바벨 인도 약 5만명
486	아하수에로 왕 집권
479	아하수에로 왕 집권 후 7년에 유대인 미녀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 됨
475	하만이 총리가 됨
474	하만이 유대 백성 처형 선포
473	왕후였던 에스더의 청원으로 유대 백성들 구출. 첫 부림절 행사 시작
465 (21년 후)	아닥사스다 왕 등극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에스더 왕후의 Step son.
458 (28년 후)	유대인 포로들 약 2천명, 2차 귀향, 에스라가 지휘함.
445 (41년 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 (cupbearer)으로 임함. 포로들 3차 귀향. 느헤미야가 왕의 직서를 지참하고 호위병들과 군대장관과 함께 귀향.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까지 약 3개월 걸림.

주: BC 445년이 41년 후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했던 때부터 계산한 연수이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 에스더 왕후가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없고 둘째로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기도라는 말 또한 없다. 총리대신 하만이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몇 날 몇 시에 도륙하라는 조서를 왕의 명의로 선포했을 때 에스더는 4장16절에서 “당신은 가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회 회장(505-271-8031)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서종철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에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에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익석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Tue-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찬 목사

주일에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일 목사

주일에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런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또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입은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기도해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다. 내 추측으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필요성을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되는 절차가 에스더 2장에 있는데 준비과정이 무려 1년이였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뽑혀 온 절세미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어떻게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독자들은 그저 하나의 story로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애굽으로 팔려 갔던 요셉이 그랬고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 그랬고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 또한 느헤미야가 그랬다. 아주 가까운 예로써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교회에 오시게 된 경과를 생각해 봐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술관원(Cup bearer)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평판이 아주 좋았다. 이것은 에스더의 선하고 고귀한 인품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모르드개 역시 능력 있는 총리대신으로 일하였다. 느헤미야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에게 올리는 모든 음식들을 점검하고 혹시 암살할 목적으로 독약을 타는 지 등을 check하는 일을 맡은 전적으로 왕의 신임받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앗시리아나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음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형제인 아나니가 와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말해 주었다. 그 형제의 대답에 의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만나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 버렸다고 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였는지 곧장 알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북한의 참상을 전율이 날 정도로 경험했고 귀가 뚫릴 정도로 들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부족한 믿음과 불타는 적개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Man of Action”의 본이 되는 분이며 떠를 떠고 섬기는 자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우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때를 쓴다는 말이 옳은 표현인지는 몰라도 1장 9절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하신 말

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

이렇게 몇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분의 모습이 아마 까칠하고 헬썩했을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수색에 잠긴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 영문을 묻자 그는 모든 사연을 말숄드렸다. 2장 4절 후반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고 모든 사연들을 아뢰므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을 떠나 약 3개월 동안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약 700mile 거리이다). 왕은 호위병은 물론 군대 장관까지 동참시키는 배려를 보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여독을 풀 사이도 없이 3일만에 성벽을 답사하였다.

느헤미야는 52일만에 성벽을 완성하였는데 이런 짧은 시일 내에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뚜렷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과 탁월한 지도력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성벽은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 예루살렘을 초토화 시킨 후 142년 만에 재건된 것이다. 이 성벽 재건은 유대인들에게 공포에서 평안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 위협에서 해방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이 재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르게 잘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고 무수한 반대 세력의 농간이 있었다. 그중에 중요한 것들 일곱 개만 뽑아보았다. 권모술수를 쓴 주동인물들은 산발랏(사마리아의 총독), 도비야(암몬족 족장), 계셈(아라비아인), 이밖에 아스돗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를 인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반대 세력에 가담했던 것이다. 첫 번째 술수는 2:19절에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계셈이 업신 여기고 비웃었다. 이것은 그저 빈정대는 것이므로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둘째는 4:1-3처럼 크게 분노하여 노골적으로 야유하였고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야유해댔다. 느헤미야는 4:4-5절에 있는 것처럼 또 기도하였다. 셋째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을 무력으로 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좀 혼란스러웠고 불안하였다. 그래서 그는 파숫군을 세워 주야로 방비케 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만반의 대비를 시켰던 것이다.

넷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방해 공작들이 모두 실패하자 이 악당들은 몹시 초조해졌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즉 편지를 보내서 오노평지에서 평화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20miles 떨어진 곳으로 산발랏의 고향이다. 느헤미야가 거기 오면 암살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체가 많은 느헤미야가 이런 엉뚱한 잔꾀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아주 정중하게 회답하여 가로되 “내 하는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풍문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 하니 만나서 의논하자고 또 연락이 왔다. 하여간 어떻게나 끈질긴 놈들인지 또 실패하자 또 다른 술책을 썼던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엉뚱한 거짓말을 막 지어내어

네가 유다사람들과 합세하여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악당들의 음모를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동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하였다. 여섯 번째는 스마야라는 유대 선지자가 두문불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하여 내가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람의 말이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성소로 들어가 문을 닫자"고 권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며 그 성소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마야가 악당들의 뇌물을 받고 이런 연극을 꾸민 것이다. 일곱 번째로 도비야는 유대인들과 인척관계가 있어서 성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걸핏하면 협박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대세력의 모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던 것이다.

느헤미야시대에 어떤 도시든지 성벽이 없으면 외부에서 침략해올 때 속수무책으로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성벽이 필요했고 그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니 그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몹시 불안한 중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훼손된 성벽을 시찰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해내고 용감하게 일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기도 또 기도, 말을 바꾸면 그는 기도하며 일했고 일하며 기도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일체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정책을 쓰지 않았고 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오직 자발적으로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성벽을 재건하자고 역설했을 때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신반의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을 설득하는데 그의 능력있는 지혜가 동원되었다. 5장 13절에 있듯이 12년간 재임하는 동안 총독의 녹(사례금 아니면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은 그의 심중에 전연 없었다. 정말 띠를 띠고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다.

나는 느헤미야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고 아무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한다고 본다. 그 당시 부자들은 재건하느라고 수입이 없어서 곤경에 허덕이는 이들의 빛과 이자받는 것을 중지하라고 권유했을 때 아멘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얼마나 빨리 강국이 되었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영적부흥운동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 (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메사버데 국립공원

이경화

알버커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치 좋은 국립공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메사 버데(스페인어로는 베르데) 국립공원(Mesa Verde National Park)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콜로라도 주에 있기는 하지만 뉴멕시코 주에 있는 칼스베드 케번 국립공원보다 25마일 정도 더 가까운 거리(약 250마일)에 있기 때문이다. 서북쪽 Four Corner 지역에 있는 쉽락(Shiprock)을 경유하거나 콜로라도 주 남서부에 있는 듀랑고(Durango)를 거쳐 갈 수 있다. '메사 베르데'는 스페인어로 그 의미는 초록색의 탁자(또는 테이블)란 뜻이다. 근대에 이르러 메사(Mesa)는 지질학적 용어가 되어 탁자같이 위가 평평한 언덕이나 산을 말하게 되었다. 이곳 국립공원은 메사로 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메사의 가장자리 절벽 여러 곳에 옛날 푸에블로 인디언의 선조로 알려진 아나사지(Anasazi) 인디언들이 부락을 형성해서 살았던 유적들이 많이 있다. 메사의 절벽 벵랑벽이 침식되어 움푹 들어간, 비바람을 피하기 좋은 지형이 많은데 이를 지질학 용어로 알코브(Alcove)라 부른다. 아나사지 인디언은 한 때 이 알코브를 주택지로 삼고 살았다. 크고 작은 벵랑거주지 유적이 약 600개나 공원 내에 산재해 있다. 75%의 거주지는 방이 하나에서 대여섯 밖에 안 되는 소형 주거지이지만 큰 주택지로는 150개의 방을 가진 곳도 있다. 공원 입구의 위치는 코테즈(Cortez)에서 동으로 9마일(15km), 듀랑고(Durango)에서 서쪽으로 35마일(56km) 위치에 있다. 매년 약 5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온다. 여름철 방문객 수는 하루당 3천명까지 이르고 겨울철에는 50명 정도로 내려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공원이다.

역사

푸에블로 인디언의 선조인 아나사지 인디언이 서기 550년경 메사 위에서 옥수수 농사와 사냥을 주로 하며 살았다. 그들이 지은 집의 구조는 땅을 약 30cm쯤 판 구덩이를 바닥으로 하고 나무기둥으로 네 귀퉁이에 비슷하게 세워 지붕을 만든 집(Pit house)을 짓고 살았다. 1100년경에는 비로서 벽돌로 벽을 세운 집을 짓고 부락을 이루기 시작했다. 1200년경 그들은 벵랑으로 내려가서 움푹 파진 알코브(Alcove)에 대형으로 집을 지어 오늘의 유적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벵랑거주(Cliff dwelling)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없이 불편한 자리인데 왜 이런 곳을 주택지로 삼았는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13세기말에 와서 연속되는 가뭄이 있었고 그로 인했는지는 모르나 주민들은 완전히 이곳을 버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뉴멕시코의 리오 그란데 강가와 Four Corner 지역으로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17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메사 베르데(Mesa Verde)라 부르기 시작한 했지만 이런 인디언 유적지가 있는지는 약 2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 본

격적으로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88년 카우 보이였던 웨더릴(Wetherill)이 유적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유적지에서 파낸 유물을 팔기 시작한 때부터가 된다. 그는 또한 1891년 스웨덴의(핀란드인) 구스타프 노든숄드(Gustaf Nordenskiöld)를 도와 많은 유물을 유럽으로 반출했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황급히 1906년 국립공원으로 선포하고 유적지를 보호하게 되었다. 핀란드 박물관이 많은 이곳 유적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많은 유물이 유럽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지리

공원의 낮은 곳은 해발 6,000피트(1,800m) 이고 메사 위의 높은 곳은 8,500피트(2,600m)가 된다. 메사 위에는 푸른 숲으로 덮여 있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협곡이 많다. 공원 입구에서 15마일(24km)을 꼬불꼬불한 산길로 올라가면 방문객 센터(Visitor Center)가 있고 거기서 6마일(10km) 더 가면 차핀 메사(Chapin Mesa) 박물관과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Spruce Tree House)라고 부르는 벵랑 주택 유적이 있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유적들이 분산되어 있다.

이곳 메사의 지층은 사암인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뒤에 지반 밑에서 물이 수평으로 스며들 이동해 절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암층에 스며들 물이 절벽으로 새어 나오기 전에 겨울철에 얼었다가 녹았다 할 때 암석이 약해져 부서지게 되어 이로 인해 암석 절벽이 부식되어 움푹 파지게 된 지형을 지질학적 용어로 알코브(Alcove)라 한다. 이 알코브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자연적으로 지붕이 형성되어 비, 바람을 막아주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으나 절벽이라는 것으로 인해 출입에 어려운 악조건도 있다. 그 악조건이 외적의 침입으로 부터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그것만이 벵랑을 주택지로 택한 이유로 보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방문객센터에서 서남쪽에 있는 웨더릴메사(Wetherill Mesa)는 여름철에만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이면서 교통이 다소 불편한 곳이다. 두 번째로 큰 롱하우스(Long House) 유적지가 있다.

안내시설

공원 중심부에 있는 방문객 센터(Visitor Center)는 원형 2층 건물인데 이곳에서 공원의 역사, 지리, 인디언 문화의 간략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유적지 안내 관광을 하려면 예약된 시간에 입장하는 Ticket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만 가능함으로 공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할 곳이 된다.

방문객 센터 남쪽에는 카페테리아 식당과 기념품 상점이 있다.

차핀박물관은 방문객센터에서 약 6마일 남쪽에 있다. 아나사지 인디언의 유품이 전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 되어 있는 인디언 문화 역사 등 전반적인 안내를 보여준다. 바구니, 신발, 밧줄을 야카

(Yucca)잎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도자기나 석기시대의 연장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도마도, 옥수수, 딸기, 호박, 목화 등의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숙소

공원 입구에서 4마일 산길을 올라와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터널을 지나기 전에 모어필드캠프장(Morefield Campground)이 나온다. 267개의 캠프사이트가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다. 샤워시설, 세탁소, 주유소, 간이상점과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 있다. 필자가 다녀본 여러 국립공원의 캠프장 중에서 가장 좋은 야영 경험을 한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공원 내의 숙박시설로는 파뷰랏지(Far View Lodge)가 방문객센터 북편에 있다. 150개의 객실이 20여개의 케빈 스타일 산장에 배치되어 있다. 공원 밖에 있는 호텔에서 공원 안까지 운전해 오는 시간이 편도에 한 시간 이상 걸리므로 이곳 랏지의 시설은 호텔에 못 미치더라도 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편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숙박할 때는 예외 없이 사슴 가족의 방문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중요 유적지

대표적인 벵랑거주 유적지는 아래와 같다.

-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Spruce Tree House)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박물관이 있는 차핀 메사(Chapin Mesa)에 있다. 여름에는 안내원 도움 받지 않고 Self-Guided Tour를 할 수 있고 사다리를 타지 않고 걸어서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가장 복원이 잘 되어 있는 유적지이다. 8개의 키바(Kiva)가 있었는데 복원시켜 놓은 키바도 하나 있어서 방문객이 사다리 타고 내려 들어가 볼 수도 있다. 키바는 종교 의식을 위한 지하 구조물이다.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에는 130개의 방이 있었고 60-80명의 인원이 약 100년 가까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크립 팔레스(Cliff Palace)

의역을 하면 벵랑의 궁전이라 할 수 있다. 공원에 있는 벵랑거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곳이다. 150개의 방이 확인되었고 23개의 키바가 있다. 공원 안내자를 따라 단체 입장을 하며 구경하게 된다. 입장권은 개인당 3불이며 방문객센터에서 구입해야 된다. 한 시간 걸리는 안내 관광 과정에서 5개의 사다리를 거쳐야 된다.

- 스퀘어타워하우스(Square Tower House)

사각 망루 집이란 의미의 집터인데 4층으로 된 망루 같은 건물이 있고 약 80개의 방이 있었던 유적지다. 서기 1200년에서 1300년에 거주한 주택지다. 내려가서 볼 수는 없고 메사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 보게 된다. Self-Guided Tour가 된다.

- 발코니 하우스(Balcony House)

공원 안내자(Ranger)를 따라 단체 입장을 하여 구경하게 된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에 있는 벵랑거주 유적지여서 굴을 기어서 통과하기도 하며 32ft의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난코스를 거치는 관광이 된다. 40개의 방이 있었던 중간 규모의 주거지였다. 노인이나 어린이를 제외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다. 역시 입장권을 미리 구입해야 된다.

- 롱하우스(Long House)

방문객센터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웨더릴 메사(Wetherill Mesa) 주차장에 도착 후(약 40분 소요) 공원에서 제공하는 트램(Tram)으로 갈아 타서 단체로 안내원과 함께 가서 약 한 시간 걸려 관광하게 된다. 공원에서 두 번째로 큰 벵랑거주 유적이다. 여름에만 구경할 수 있다. 웨더릴메사로 들어가는 도로는 여름철 이외에는 폐쇄된다.

참고자료:

1.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Mesa_Verde_National_Park
2. 메사버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nps.gov/meve/index.htm>
3. 한글 위키백과(필자가 기여했음):
<http://ko.wikipedia.org/wiki/메사버데국립공원>

올해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선거에 참여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로 받아서 부재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absenteeballots.com/forms/register/registration/new-mexico.html>

사진 1: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Spruce Tree House)
로 내려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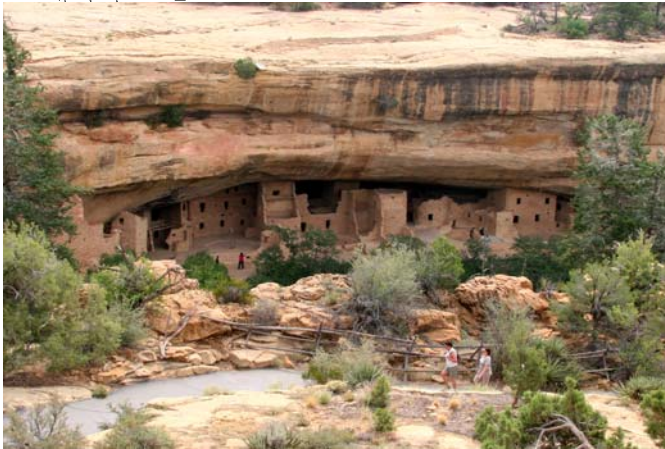


사진 2: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Spruce Tree House)
를 구경하는 관광객



사진3 : 벼랑주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립 팔레스
(Cliff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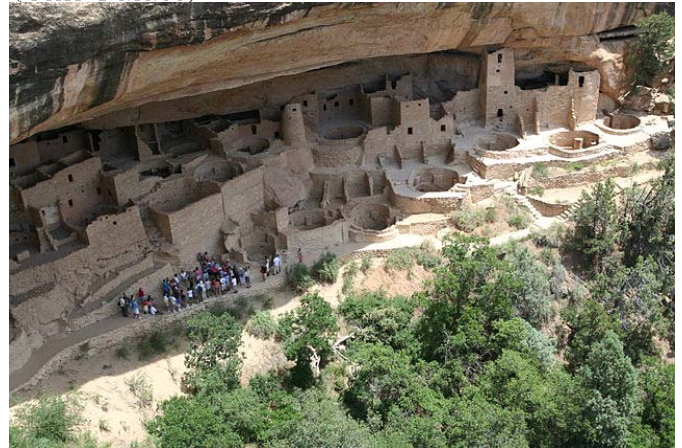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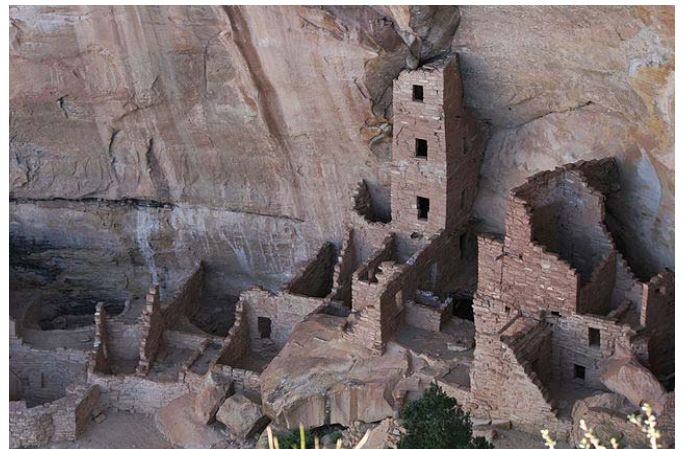


사진 4: 4층으로 지은 망루가 있는 스퀘어타워하우스
(Square Tower House)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5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김기현 목사의 마태복음 1장18-25절 해설

마태복음의 족보부분(1:1-17)과 본 단락(1:18-25)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각 단락을 시작하는 구절을 볼 때 분명해진다. 본 단락은 18절에서 Τοῦ δὲ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ἡ γένεσις(투 데 예수 크리스투 헤 게네시스)로 시작한다.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의미가 된다. 앞부분의 족보는 1절에서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란 구절로 시작한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 된다. 두 단락은 모두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예수 크리스투)와 γένεσις(게네시스)란 단어로 시작하는 치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두 단락을 예수의 기원에서 볼 때 1:1-17절까지는 예수의 인간적 기원에 관한 족보라고 하면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예수의 신적 기원에 관한 족보라고 볼 수 있다.¹⁾ 두 단락을 종속 관계로 본다면 18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앞의 족보의 부연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태는 앞부분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밝혔다. 본 단락을 통해서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며 이런 마리아를 요셉이 부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는 합법적인 다윗의 후손이 되었음을 마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²⁾.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었다. 이런 예수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크리스찬 뿐 아니라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에 대한 고백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전해 내려왔다.³⁾ 마태가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의 기원에 대하여 마태 교회 교인들이 확신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는 다

윗의 자손이며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분이시다. 1장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본 단락은 그중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본 단락에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크리스찬의 모델로 요셉이 언급된다. 요셉은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주의 천사가 말해준 성령에 의한 마리아의 임신 그대 믿는 사람이다. 주의 천사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의심했고 고민했지만 천사가 소식을 알려준 후에는 의심하는 일 없이 천사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본 단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이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란 의문은 마태복음 신앙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신앙이기 때문이다(19:26).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도 부모 없이 창조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를 왜 아버지 없이 낳게 할 수 없겠는가?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요셉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단락의 헬라어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된다. 18절 첫 문장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의미를 갖는 Τοῦ δὲ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ἡ γένεσις(투 데 예수 크리스투 헤 게네시스)로서 마치 본 단락의 제목처럼 언급되었다. 이어서 분사구문을 사용하면서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을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시키지만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고 “임신한 것”이란 분사 ἔχουσα(에쿠사)이다. 마리아의 임신은 본 이야기의 전제일 뿐이다. 19절로 가서야 비로소 사람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데 그 주어는 마리아나 예수가 아니라 “요셉”이다. 문장 구조 자체는 요셉이 본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말하고 있다.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20절에서는 천사가 사람처럼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린다. 마리아의 임신, 아들을 낳을 것, 아들의 이름에 관한 천사의 알림은 구약 인용까지 두 번 반복된다. 물론 “예수”와 “임마누엘” 서로 다른 두 이름이 제시되었다. 24절에서 마태는 몇 개의 간단한 문장으로 본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다. 이 결론 문장에서 마태는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셉이 천사의 분부를 정확하게 순종했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시행되고 이어서 인간의 순종이 따른다. 결국 구조로 볼 때 이 단락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을 내용으로 해서 요셉

1) G. Jerome Albrecht, Michael J. Albrecht, *Matthew*, 20

2) Leopold Sabourin, S.J.,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195

3) 누가복음에도 동정녀 탄생을 알려진 것을 보면 본 단락의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 고유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내려오던 하나의 전승이었을 것이다. 마태나 누가에 있는 동정녀 탄생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는 주전 4세기 전인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유대 땅에 최초의 인구조사는 주후 6년 아니면 7년경에 있었다. 더욱이 누가복음 2:2절에 언급된 퀴레뇨(Quirinius)는 주후 6년까지 다른 지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리아의 총독은 아니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의 부모는 아기가 탄생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반면에 마태에 따르면 예수의 부모들은 오랫동안 나사렛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누가의 설명에 있는 것이 마태에는 없다. 천사의 소식이 마태에서는 요셉에게 왔지만 누가에서는 마리아에게 왔다. 결국 마태와 누가는 예수는 동정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의 부모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을 일치한다. 참조, Eduard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33; Leopold Sabour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196

4) Daniel J. Harrington, S.J., *The Gospel of Matthew*, Sacra Pagina Serie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1) 39

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한다.⁵⁾ 족보를 시작하는 1절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본 단락이 보여주고 있다. 마태는 본 단락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 요셉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⁶⁾

본 단락을 통하여 마태는 기록본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예수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다”는 메시지가 본 단락에 들어 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사람의 족보에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고 이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예수가 소개된다. 마리아와 가장 가까웠던 요셉의 눈으로도 마리아의 태 안에는 아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한 것이었다. 천사의 말도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이 겪는 10달의 과정을 겪고 보통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 방법대로 출산하여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이다. 성령 임태만을 제외하면 예수는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가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는 오시는 메시아를 “예수”와 “임마누엘” 두 이름으로 소개한다. 이 이름들은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예수는 누구인가?”와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독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먼저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란 이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약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다(시 3:8, 욥 2:9, 시 130:8). 마태는 예수란 이름을 소개하고 이어서 그 이름 풀이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결국 예수가 하는 일을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본 단락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예수”란 이름의 뜻 안에 들어있고,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 안에 들어 있다.⁷⁾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이라 한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하실 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본 단락에서 임마누엘이 갖는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귀 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5)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15

6) Keener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빈증하려는 입장에서 본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덕적 고결함을 강조함으로 마태는 예수의 탄생 역시 순결한 것이고 예수의 가정교육 역시 경건하였음을 강조하려 했다. 참조,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88

7) Frederick은 본 단락이 당시 이단 사상이었던 가현설(Docetism)로 기울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하지만 마태복음 뒷장에 이어지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 문제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다. 참조, Frederick Dale Bruner, *The Christbook, A Historical / Theological Commentary*, Matthew 1-12 (Waco, Texas: Word Books, 1987) 25-26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환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티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골프 레슨

Greg Lee

(505) 681-9277

-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business 졸업
-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master program 졸업
- Wally Armstrong golf teaching license
- 안동 과학 대학 골프 강의
- 대구 유성스포츠 헤드 프로

1회 레슨(60분) \$ 60

3회 레슨(매회 60분) \$ 150

장소 - Golf Traning Center in Baloon fiesta park
Arroyo Del Oso golf course

구인 광고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엘비스 트레이딩의 송정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그린에 주얼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앨버커키 지역에 9군데 에 서비스를
파트타임으로 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1달에 2, 3 일 정도 일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847-813-9116,
847-414-9547 (cell)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리아미드 (나일론) PA6
PA66 구입합니다 폐기되는
카페에서각은 샴방가루
,펠렛 PA6 PA66
섬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매주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E-mail
lsy1030@korea.com

MOBILE +82-16-850-9952
번입니다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축 개업
ASIA MARKET
아시아 마켓

6207 Montgomery Blvd NE
(NE corner of
Montgomery & San Pedro)
(505) 503-7685

(Old Dinho Market - One of the
oldest Asian Markets in Albuquerque)

Grand Opening

Hours: Mon-Sat 10-7 Sun-11-5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To: